

“미세먼지 줄여요” 광주지하철 지하역사 일제 청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11월 전국 실시...올해 첫 시범 도입

광주지하철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에 대비, 역사 내 청소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에 나선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광주지하철공사(이하 광지공사)를 비롯해 서울·부산·인천교통공사, 대구·대전지하철공사, 김포폴드라인, 공항철도, 서울시메트로9호선, ㈜네트웍스, ㈜에스알, 우이신설경전철, 서해철도, 한국철도공사 등 전국 지하철을 관리하는 14개 교통사업자가 11월 한달간 지하철역 집중 청소로 나선다. 이번 지하철역 일제 청소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전국 지하철역 내의 미세먼지를 미리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광주지하철공사도 일제 청소기간 동안 지하철역사의 승강장, 대합실, 환기구 등을 대상으로 불청소를 하거나 물걸레 등을 이용한 습식 청소를 더욱 자주하는 등 지하철역 실내공기질 관리를 평소보다 강화한다. 역사별로 운영여건에 따라 하루 1~2회 습식청소 횟수를 추가 할 예정이다.

또 광주지하철도와 서울·부산교통공사, 대구·대

전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 등은 터널에서 승강장 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터널 물청소도 실시한다.

지하역사는 구조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이 많아 이용객이 몰릴 경우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 등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기간에는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 이번 역사 일제 청소를 준비했다.

또 지하 역사는 외부 대기의 미세먼지가 출입·환기구를 통해 들어오거나 이용객의 신발 또는 옷 등에 묻어 유입될 수 있으며, 열차 진·출입 시 발생하는 열차풍을 타고 터널 내 미세먼지가 승강장으로 들어와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 실시하는 이번 일제 청소가 지하철역사와 터널의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일제 청소기간이 끝난 후에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를 감소하고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광주지하철공사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역사 내 공기정화설비와 환기설비 가동을 확대하고, 방풍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는 등 실내공기질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터널 공간에 대해서도 운영여건에 따라 환기설비 및 집진기 가동,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하철역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제3차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지하철역사 내 공기정화설비와 환기설비 설치·개량, 터널 미세먼지 저감설비 및 지하철 객차 내 공기정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교통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모든 지하철역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를 완료하고, 24시간 및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inair.or.kr/info)과 모바일 앱(인에어)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산수2동 아름다운 벽화 골목길 걸어요”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화단·담장벽화 조성

광주시 동구 산수2동에 아름다운 벽화 골목길 조성됐다.

2일 동구에 따르면 산수2동 호랑꼬두메 주민협의회는 마을 화단 및 담장벽화 그리기로 아름다운 마을 골목길을 만들었다. <사진>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주민협의회 회원, 마을공동체 활동가, 해당 골목길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내 집 앞 대문과 담벼락에 꽃을 심고 낡은 담장에는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를 그려

두은 골목길을 밝고 친근한 골목길로 탈바꿈시켰다. 호랑꼬두메 주민협의회에서 진행한 '골목길에 걸린 화단 조성'은 마을의제사업 중 하나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신주 디자인 제작 설치 ▲등산로 일원 야자매트 설치 ▲기타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통 담벼락 공동체의 '골목길에 그려내는 마을 이야기'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직접 나서 마을과 이웃의 모습을 담은 벽화를 그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북구, '의료·주거·요양' 통합 돌봄 눈길

통합돌봄누리센터, 케어안심주택 사업 주민 호응

광주시 북구가 지역내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2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역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인 통합돌봄누리센터와 케어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의료·주거·요양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사업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두암동에 위치한 통합돌봄누리센터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의사협회와 연계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과 함께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휠체어, 목발 등 복지 용구도 대여하고 있다. 원예치료, 미술치료와 더불어 치매의심환자를 위한 중독관리상담 등 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병원, 요양시설 등 퇴원 희망자 중 주거지가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은 북구가 LH와 임대계약을 맺고 매입임대주택 4곳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입주한 주민들

은 영양도시락, 한의사 주치의 등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 오는 19일까지 북구 소재 3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40여 명과 56개 자활근로 사업단이 참여하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한다.

특히 북구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탈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공공형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인 구정장은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의 건강 회복과 복지 욕구 충족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 '탐방거리두기'

본격적인 단풍여행철을 앞두고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탐방거리두기'에 나선다.

2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탐방거리두기 수칙을 알렸다. 위드코로나를 시작으로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무등산 단풍을 보기위해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구체적인 수칙으로 ▲어디서든, 2m이상 떨어져 있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공용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하기 ▲밀집장소인 쉼터 등에서 오래 머물지 않기 등을 내놨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장필재 탐방시설과장은 “무등산의 가을을 탐방객 모두 안전하게 만끽할 수 있도록 햇빛 가리개, 버프 등이 아닌 비말 차단이 가능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초등생과 함께 '세대공감프로젝트'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최근 광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인식개선 프로그램 '세대공감프로젝트 노인? Know인!'을 진행했다.

<광주 서구 노인복지관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 밀렵·밀거래 강력 단속

내년 3월10일까지 철새도래지·밀렵우심지역 중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계획됐다.

영산강청은 이달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지자체와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철새도래지역, 밀렵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알선, 불법엽구 판매와 설치, 온라인을 통한 멸종위기종 판매와 거래 행위 등이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 가공,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먹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영산강청은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불법행위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 등에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류은선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 목격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